

## 결혼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에 관한 연구

최병두\* · 정유리\*\*

**요약** 본 연구는 행위자, 행위자 간 연결성, 연계 구조 등에 초점을 둔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변화와 행위자들 간 영향력 관계를 살펴보고, 결혼이주자가 상호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구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주 및 정착과정의 시기를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 이주 과정, 이주 직후, 현재로 구분하여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와 형성, 그리고 축소와 확대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행위자의 규모적 차원으로는 개인적 차원, 지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 지구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결혼이주자의 생활에 있어 행위자들이 미치는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인 136명의 결혼이주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시기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였다. 또한 행위자의 영향력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개인·지역·국가·지구적 차원으로 유형화하여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혼이주자는 자신을 지지해 주는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이 구축될수록 한국생활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궁극적으로 결혼이주자의 한국사회에서의 생활에서 중요함을 밝혔다.

**주요어** 결혼이주자, 사회적 네트워크, 행위자 네트워크, 생활만족도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2012년 정부 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을 지원받아 수행되었다(NRF-2012S1A2A03033937).

\* 대구대, 지리학, bdchoi@daegu.ac.kr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지리학, jeongyuri2@naver.com

## 1.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초국적 이주는 일시적 결과가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역동적 과정의 연속이다. 특히 결혼이주자의 공간적 이동에서 나타나는 국경을 초월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대는 초국가적인 사회의 장을 구성한다. 이주는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일부 단절과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포함하며 (Wong and Song, 2006; 김렬, 2011), 그러한 과정에서 결혼이주자는 한국사회의 여러 행위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본국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속/변화 시켜 나간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 다양한 행위자로부터 이주 및 정착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유입국에서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계 맺고 있는 다른 행위자들에게 또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주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 시기에 따른 사회·공간적 위치의 변화 및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의 변화, 사회적 지지체계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주 및 정착과정 시기별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결혼이주자들이 다른 행위자들과 어떻게 타협하고 협상해 가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행위들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관계 특성을 구성하는 결혼이주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한국사회는 결혼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전개되는 네트워크 관계의 차이점에 주목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과잉된 획일적 정책적 지원만을 시행해 왔다. 한국사회는 이주자가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민·관 차원에서의 여러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주자들은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순희, 2009). 시기에 따라 결혼이주자가 직면한 문제 양상과 생활은 변화하고, 각 시기별로 지원이 필요한 요소들과 사회적 관계 역시 달라

지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정책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지원 단체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결혼이주자의 경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부재한다. 즉, 무조건적인 지원의 확대만이 모든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요구도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로의 무조건적인 동화를 유도하는 정책은 결국 이들을 더욱 배제 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와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결혼이주자를 위한 학술적·실천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행위자, 행위자 간 연결성, 연계 구조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 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변수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과정 시기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의 변화와 행위자들 간 영향력 관계를 살펴보고, 결혼이주자가 상호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구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결혼이주자의 인적 네트워크 관계에만 한정하여 관계적 특성을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거시/미시, 인간/비인간(non-human)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의 개념을 바탕으로 비인간 행위자를 포함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연구 목적 및 자료 분석 방법

결혼이주자의 이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주자는 이전의 환경에서 벗어난 공간적 이동과 함께 이주국가로부터 사회·문화·경제적 장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제 규범 내에서 거시적·구조적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결혼이주자는 갈등, 경쟁, 연대, 인정, 결속 등의 다양한 행위 양식을 전개해 나가며, 결혼이

주자를 둘러싼 행위자들 간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 또한 변화해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별 결혼이주자들이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 이러한 영향력들이 결혼이주자들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 양상을 시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 이주 과정, 입국 직후, 현재의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결혼이주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 시기 별 개인, 지역, 국가, 지구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각 행위자가 결혼이주자의 전반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둘째, 결혼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한국사회로의 이주 이후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의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행위자들의 영향력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이주 직후와 현재의 시기적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결혼이주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편의추출방법(Convenience Method)으로 2013년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일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로 회수된 설문지는 154부였으며, 무응답이나 중복응답 등 분석에 문제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36부이다. 결혼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Netminer 4.0, SPSS for Window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이론과 연구동향

### 1) 국제이주 이론

국제이주에 관한 논의는 크게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강조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주이론, 구조이론, 개인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의 복합적 작용에 의한 행위-구조 관계이론으로 구분된다. 이주 이론은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이론들은 대체로 이 이론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석현호, 2000). 매시(Massey et al., 1993)는 개인, 가족, 국가 그리고 세계 수준의 분석수준에 따라 신고전경제학, 신이주경제학, 노동시장 분절론, 그리고 세계체제론으로 분리하여 이주의 원인을 분석하는 이론들을 소개한 바 있으며, 먼저 신고전경제학은 이주의 결정이 개인 행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으로 구분된다. 거시이론(균형이론 또는 배출-흡인론)은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지역 간 차이를 인구이동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며, 지역 간 고용기회와 임금의 차이를 이주의 원인으로 가정한다. 이렇듯 배출-흡인론은 국제적 노동이주가 발생하는 이유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배출요인과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흡인력 간의 관계로 파악하며, 배출요인으로는 고용기회의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부실한 사회 시설, 정치적 또는 종교적 억압, 자연재해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미시이론(비용-편익분석)은 인적자본론으로 대표되며, 사람들은 자신의 교육, 경험 등과 같은 인적 자본을 투자하여 고용이 가능하고, 비용-편익의 계산에 의해 가장 큰 순이익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국제이주에 대한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경제균형론의 입장을 취하며(석현호, 2000), 이러한 신고전경제학의 관점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신이주경제학은 이주의 결정이 고립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가계(household)와 공동체 등의 보다 큰 단위의 행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김용찬, 2006). 노동시장분절론은 경제구조적 조건을

이주의 주된 요인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이론, 즉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 신이주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해주고 있다. 노동시장 분절론에 의하면 국제이주는 발전된 국가들의 경제구조에 본질적 특성인 이주노동력의 영구적 수요 때문에 일어난다. 다시 말해 자본강국의 노동시장이 고임금의 일차시장과 저임금의 이차시장으로 분절되어 있고, 저숙련 노동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국제이주가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이다(석현호, 2000). 그러나 자본 강국의 노동시장이 이 이론의 주장만큼 이념형적으로 양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전문직 이주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상향이동으로의 국제이주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한계점을 가진다.

사회적 자본론은 이주자의 사회적 자본, 즉 사회연결망과 사회제도와의 참여가 자원 획득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에 근거한다. 어느 두 국가 간의 이주자들이 일정한 수를 넘어서면 이주연결망, 즉 이주자, 이전 이주자 그리고 송출국과 유입국의 비이주자를 연결하는 친족, 친구 등의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이주연결망이 형성되면 그것은 이주의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켜 순이익을 증대시켜 주기 때문에 이들간의 이주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석현호, 2000). 이후 등장한 이주체계이론은 기존 이론들과는 달리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 분석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김용찬, 2006). 국제노동이주에 관한 연구는 송출국의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국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한다(최병두, 2012). 이에 이주체계이론은 이주송출국과 수용국 모두를 중요한 축으로 하여 동시에 분석단위로 고려될 수 있는 기초를 제기해 주었다(표 1).

행위자적 관점이나 구조적 관점 모두 이주에 관한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제공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국제이주가 감행되는 배경에서 행위자나, 구조나 하는 식으로 두 가지 요인을 분명히 구별해 내기는 쉽지 않다(전형권, 2008). 국제이주의 국면별 이주 논의와는 다르게 카슬과 밀러(한국이민학회 역, 2013)는 이주의 다차원적인 구조론을 제기하였다. 카슬과 밀러는 인구이동을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하였으며, 거시구조는 세계시장의 정치경제, 국제관계, 그리고 이주를 통제하는 송출국과 유입국 정

표 1. 국제이주 요인

구분	송출국과 수용국 간 차이 요인			송출국과 수용국 간 관계 요인		
	격차요인	송출국요인	수용국요인	미시적 관계	거시적 관계	중범위 관계
주요 지표	국제이주의 송출국과 수용국 간 임금, 고용기회(실업), 경제발전, 생활수준 등의 격차	이주하는 개인·집단·지역의 경제·사회적 위험 대처, 실업 및 일 시고용 대처, 부(송금유입)	노동(경제활동인구)부족, 노동시장 분절에 따른 저숙련노동 부족, 고령화에 대처	양국 거주 개인 또는 집단 간 관계의 역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역사회 연계	양 국가 간 사회경제적 관계: 식민지/모국관계, 무역 및 투자, 정치적, 문화적 유대	기업의 초국적 활동, 정책적 관계(양 국가 간 제도적 합의), 중개업자(브로커)의 역할
이론	배출·흡인 이론	신이주경제학	노동시장 분절론	사회적 자본론	이주체계이론	-

출처: 최병두(2012)

부에 확립된 법, 관행 등의 대규모 구조적 요인들을 말하고, 미시구조는 이주자들의 사회 연결망, 신념 등을 의미한다. 카슬과 밀러는 국제이주의 흐름에서 처음에는 노동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후에 가족재결합, 정착, 그리고 공동체 형성의 순서로 이주과정이 진행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세계의 주요 국제이주 흐름을 파악하고, 역사 구조적 맥락에서 거시적·미시적 요소를 잘 파악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박신규, 2008). 이밖에도 국제이주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초국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대하여 주목하는 초국가주의이론 등이 있다.

## 2) 이주 과정 및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초국적 이주와 정착 과정은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초국적 이주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활동 속에서 사람들은 실제 연결망의 복잡성에 대해 모르고 살아간다. 연결망이 하나의 텅어리처럼 행동하고, 하나의 행위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Latour, 2010; 홍민, 2011).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은 1980년대 초 라투어(Bruno Latour), 깔롱(Michel Callon), 로(John Law) 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에

의해 등장하였다. ANT 연구에서 로(John Law)는 사회 자체를 이질적인 연결망(heterogenous network)으로 보았으며, 사회와 조직, 기계 등은 모두 인간만이 아닌 물질적 요소까지를 포함한 이질적인 요소들의 연결망에 의해 창출되며,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환원주의를 배격한다(김동광, 2005).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이 연결수나 중심성 등 구조적인 형태의 분석을 중시하는 반면, ANT는 서로 다른 연결 종류에 따른 연결망의 구조 자체에는 초점을 두지 않으며, 어떻게 상이한 다양한 행위자가 상이한 관계에서 출현하는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행위자 연결망이 상이한 권력관계를 발생시키는가에 더 관심을 가진다(홍민, 2011). ANT에서 다양한 행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단순히 인간들만의 관계들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네트워크 속에서 인간은 수많은 다른 인간, 비인간들과 연결되어 있고, 비인간도 술한 인간, 비인간들에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ANT는 인간 행위자와 주변의 물질적 환경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서 시작되며, 비인간 행위자는 인간 행위자와 동등한 대칭적 관계에서 세계를 구성한다(김진택, 2012). 즉, 인간, 기술, 문화, 사물 등은 어느 부분에 속하거나 결합된 것이 아닌 동등한 대칭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ANT에 의하면 사회는 결국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집합체(collective)로 이해되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비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행위성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성이 합쳐진 결과이다(홍민, 2013). ANT의 주요 특징들은 비인간 존재에 행위성이 있다고 본다는 점, 기호학에서 얻은 관계 개념을 텍스트 연구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테마들에게까지 확장시킨다는 사실, 사회 또는 문화 영역과 자연, 기술, 과학 영역 사이의 실제적 구별, 대립을 부정한다는 것이다(김보현, 2013). ANT의 입장에서 보면 네트워크의 안/밖, 자연/사회, 자연/문화, 과학/사회, 사실/가치 구분은 중요하지 않으며, 성장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상호구성하는 역할을 한다(현재환·홍성욱, 2012). ANT는 어떻게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동원되고 배열되며, 더 나아가 이들 요소들이 하나로 유지되면서 이중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는지를 탐구한다. 즉, 다양한 행위자를 구분 짓는 것보다 이들이 어떻게 가치를 생산해 내는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가에 더욱 초점을 둔다. 또한 새로운 관계의 형성은 연결망 또는 네트워크의 형태로 나타나며, 행위자는 연결망이 없이는 행위할 수 없고, 연결망은 행위자들로 이루어져있다. 행위자 연결망은 서로를 지속적으로 재규정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다(김환석, 2001).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이 다른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비인간도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의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는 ANT의 개념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영향력을 서로가 서로에게 행사하는 행위자에 비인간 행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NT는 사회적 것(the social)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 행위자는 물론 비인간 행위자,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조직을 설명하려는 노력이다. 네트워크 내의 행위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하는 연결의 수, 그 연결의 광범위성과 안정성을 통해 권력을 얻는데, 연결이 성공한 경우 네트워크는 블랙박스가 된다(이충환, 2012). 연관되지 않았던 요소들을 연결하거나 한 요소가 다른 여러 요소들을 구속함을 보이는 노력을 통해서 서로를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한 묶음의 실행들의 결합을 서술함으로써 현실을 설명하려한 ANT처럼,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자의 공간적 이동과 이주 및 정착 과정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ANT의 개념을 이용하여 그 관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 3)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위에서 서술한 ANT에 바탕을 두는 한편,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병행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결망 또는 관련성을 의미하며, 모든 행위자는 각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은 인간관

계를 중심으로 연결망의 형태에 따라 다른 행위 양식을 나타내며, 개인의 개별적 속성에서 개인의 관계적 속성으로 설명의 중심을 옮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구양미,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ANT의 비인간 행위자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에 포함시켜 행위자를 하나의 점으로, 그들 간의 관계를 선으로 이어, 현상을 하나의 추상화된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적 관계의 형태(morphology)나 사회적 연계 유형(patterns of social linkages)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조나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의의가 있다(김용학, 2007). 그러나 그것이 개체들의 속성 자체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며, 개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와 그 연결망 안에서 갖는 개체의 지위에 우선 관심을 가지고 네트워크화 된 개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의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다(조진희 외, 2006; 장임숙, 2013, 광기영, 2014; 임석희·송민정 외, 2015).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행위자의 성과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어왔으나(Oh et al., 2004; 박혜원·문형구, 2009), 그 개념을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Seibert·Kraimer and Liden(2001)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자아에 의해 정의된 집단의 사람들 혹은 사회적 역할을 노드(node) 사이의 관계 혹은 관계의 부족을 나타내는 일련의 연결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소속된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며, 성원들 간의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연계시키고, 긴밀한 관계를 지속시켜 주어 결속감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김용학, 2007; 문성애, 2008; 염동문 외, 2013),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망(연결망, 지원망), 사회적 지지체계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Bourdieu는 사회 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획득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고(Bourdieu, 1986; 이정향·김영경, 2013),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을 행동을 촉진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변화를 통해 만들어진다

고 정의한다(Coleman, 1988; 나금실, 2011).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학자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사회 자본으로 개념화해왔다. Lin and Ensel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는 가족과 같은 가장 친밀한 층에서 시작해 친구, 친척 등 중간 수준으로, 그리고 공동체와 같은 외부 층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사회적 연계는 사회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Lin and Ensel, 1999; Lancee, 2010). 달리 표현하면, 개인의 사회연결망은 일종의 자본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Flap and Volker, 2004; 김경미, 2012).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지지 개념을 포함하는데 사회적 지지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제공되는 심리적·물리적 형태의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총칭하는 말로, 결혼이주자의 개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한국사회로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는 약한 유대(비즈니스 중심으로 구성된 공식적 네트워크)와 강한 유대(주로 가족, 친지나 가까운 친구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로 구분되기도 한다. 강한 연계는 행위자간 접촉 강도나 빈도가 높은 관계이고, 약한 연계는 접촉 강도나 빈도가 낮은 관계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계는 상이한 효과를 낳는데 강한 연계가 정서 및 물질적 측면에서 지지 효과를 창출한다면, 약한 연계는 정보 획득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김경미, 2012). 이외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과 관련하여 결속적(bondding) 연계와 교량적(bridging) 연계로 구분되기도 한다(Putnam, 2000)<sup>1</sup>.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계 강도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ANT에서는 설정하지 않는 공간적 차원 또는 규모(Scale)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의

1 교량적 연계가 사회적 배경이 상이한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면, 결속적 연계는 사회적 배경이 매우 유사한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말한다. 결속적 연계는 이민자에게 낯선 환경에서의 보호나 위협 관리, 결속력 등에서 도움이 되고, 교량적 연계는 경제적 기회나 다양한 정보 접근 측면에서 유용성을 지닌다(Woolcock and Narayan, 2000). 일반적으로 강한 연계가 결속적이고 약한 연계가 교량적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두 차원이 반드시 겹치는 것은 아니다(Gidengil and Stolle, 2009; 김경미, 2012).

표 2.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지표

선행연구	지표
Freeman(1979), Seibert · Kraimer and Liden (2001), Morrison(2002) 등	네트워크 영향력, 네트워크 크기(size), 연결정도(degree), 연결정도 중심성(centrality), 경로의 길이(path length) 등
Ibarra(1995, 1997)	네트워크의 범위(range), 네트워크 유대감·강도(strength), 지위(status) 등
Burt(1983)	밀도(density), 네트워크 규모
Podolny and Baron(1997), Higgins and Kram(2001) 등	네트워크 유대감
Anderson(2002)	접촉빈도(amount of time), 근접성, 상호작용 정도
Granovetter Mark(1973)	교류빈도, 친밀감(intimacy), 네트워크 유대감 등
Ashford and Tsui(1991)	중심성

공간적 규모는 분석적이며, 미시적/거시적, 행위적/구조적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는 한 행위자(노드)가 네트워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심성(centrality)<sup>2</sup> 지표가 있다. 중심성은 각 행위자와 관련된 개별 수준의 변수이지만, 전체 네트워크를 고려해야 계산 가능한 지수이다(Mizruchi and Marquis, 2006; 구양미, 2008). 중심성은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로 사회적 관계로부터 나타나며, 각 행위자들은 강한 유대가 형성될 경우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표 2와 같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 4) 선행연구의 고찰

결혼이주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주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있어서의 같

2 중심성은 각 노드별로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도를 지수화한 계량적 값으로 계산 방법에 따라 연결정도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으로 구분된다.

등이나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조민경·김렬, 2010), 최근에는 이주자의 사회적 자본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결혼이주자들의 적응/부적응의 문제를 개인 혹은 가정에 한정된 문제로서 바라본 것과 달리,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결혼이주자들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견하며, 그들의 실제 생활을 고려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결혼이주자와 관계 맺고 있는 주변 행위자들의 영향력은 결혼이주자의 행동 양식이나 일생 생활에서의 변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며, 결혼이주자의 경우 한국인 가족의 지지가 결혼생활 안정이나 삶의 질에 중요하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박미정·엄명용, 2009; 김현숙 외, 2011; 김경미, 2012).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윤균(2007)은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결혼이주자의 사회연결망은 가족 의존적인 특성을 보이고, 가족 외부의 경우에는 주로 모국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인과의 관계는 상당히 제약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결혼이주자의 대부분은 가족과 친구를 통한 사회적·민족적 연결망을 형성하여 출신국과의 연결을 강화시키려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미(2010)는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을 바탕으로 가족 중심형, 한국인 친구 중심형, 이주민 친구 중심형, 복합형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유형화하였다. 이외에도 노연희 외(2012)는 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유형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기반을 다졌으며, 박순희·조원탁(2013)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과 일반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 비교결과 일반여성이 이주여성보다 대체로 사회적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은 이주여성이 사회적 연결망의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자와 연계된 행위자들의 영향력과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및 정착에 관한 연구이다. Seibert·Kraimer and Liden(2001)는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이 네트워크 영향력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네트워크 영향력이 개인의 정서 및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 연구이다. 또한 Portes and Sensenbrenner(1993)의 연구에서 본국 출신 이주자들의 강한 연계는 이주자들 간 자원의 흐름과 교환을 쉽게 함으로써 이주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이나 경제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ortes(1995)는 이주자들의 폐쇄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연결망을 중시했다. 행위자들의 영향력과 적응 및 정착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이주재·김순규(2010)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연결망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주여성과 그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 형성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사회적 연결망은 한국사회에 안착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는 사회적 관계 구축을 증진시키며, 결국에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즉 형성된 연결망의 밀도와 다양성은 이주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정체성의 확립은 한국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이어졌다.

셋째,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다. 장지혜·설동훈(2006)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성원간의 접촉, 특히 본국 가족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경미(2012)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족 연계, 정서적 연계, 모임 수준으로 구분하여 한국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가족연계 변인 중에서는 모국가족 접촉 빈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거가족 크기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국 가족의 지지망은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작동하고 있는 한편, 한국 가족은 지지망으로 작동하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민아(2010)의 연구는 본국 출신 동료와의 연결망이 결혼이민자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 전에 한국 내에 존재하였던 본국 출신 동료와의 연결망은 우울도와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본국 출신 동료와의 연결망 효과를 이민 전후의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이민 전 혹은 이민 전후 모두 본국 출신 동료이민자와의 연결망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연결망을 전혀 갖지 않은 여성에 비해 우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구성원 특히 배우자와의 연계는 결혼이주자의 우울도와 삶의 만족도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초기 이주자들에게 가족, 친족 등 유사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강한 연계는 중요하지만, 주류 사회와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시기가 되면 종족 및 문화적으로 상이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 진다(Ryan, 2007; 김이선 외, 2011).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가족 및 인종 기반의 결속적 연계가 이민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만을 강조해 온 바, 한국의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에 관해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시기별 혹은 개인적 특성에 따른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를 통한 초국가적 행위를 탐구하는 연구는 미비하며, 더군다나 사회적 네트워크에 단순히 인간 행위자만을 포함시키는 연구가 대부분이기에 비인간 행위자와 초국적차원의 행위자를 포함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인간·비인간 행위자를 포함한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였다.

### 3.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주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설문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주자 80명(58.8%)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 56명(41.2%)이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나이는 30대 미만이 82명(60.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세 이상-40세 미만이 49명(36%), 40세 이상-50세 미만이 3명(2.2%), 50세 이상이 2명(1.5%)의 비율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연령대는 결혼이주자의 나이에 비해 연령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50대 미만이 69명(50.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결혼이주자들의 출신국가를 기준

표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여	136	136	거주 기간	1년 미만	9	6.6
나이	30세 미만	82	60.3		1년 이상-3년 미만	28	20.6
	30세 이상-40세 미만	49	36.0		3년 이상-5년 미만	25	18.4
	40세 이상-50세 미만	3	2.2		5년 이상-7년 미만	29	21.3
	50세 이상	2	1.5		7년 이상	45	33.1
	현재 거주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81		59.6	기독교	16
	경상북도 청도군	55	40.4	불교	59	43.4	
배우자의 나이	30세 미만	7	5.1	종교	이슬람교	2	1.5
	30세 이상-40세 미만	35	25.7		천주교	8	5.9
	40세 이상-50세 미만	69	50.7		통일교	4	2.9
	50세 이상	23	16.9		기타 (무교)	4 (35)	2.9 (25.7)
	결측	2	1.5		결측	8	5.9
	출신국	베트남	86		63.2	자녀 유무	유
일본		9	6.6	무	28		20.6
중국		17	12.5	시댁가족	유	55	40.4
캄보디아		12	8.8	동거유무	무	81	59.6
필리핀		7	5.1	본국가족	유	7	5.1
기타		5	3.7	동거유무	무	129	94.9
국적 취득유무	유	56	41.2	현재 취업 유무	유	97	71.3
	무	80	58.8		무	39	28.7

으로 볼 때, 베트남 출신이 86명(63.2%)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중국 17명(12.5%), 캄보디아 12명(8.8%), 일본 9명(6.6%), 필리핀 7명(5.1%)으로 나타났다. 기타지역 출신으로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명(3.7%)의 결혼이주자가 응답하였다. 거주기간에 대한 응답에서는 45명(33.1%)의 응답자가 7년 이상 한국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7년 미만이 29명(21.3%), 1년 이상-3년 미만이 28명(20.6%), 3년 이상-5년 미만이 25명(18.4%), 1년 미만이 9명(6.6%)의 응답률을 보였다.

## 2)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은 행위자 간의 관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의 전반적인 체계를 효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관계의 맥락을 통하여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 양식의 차이에 따라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 양식의 변화와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결혼이주자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들은 그들의 생활전반에서의 모든 흐름과 작용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행위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분석과 향후의 변화 여부에 대한 전망에서 그러한 행위자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조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자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연결망이 어떤 형태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연결망 속에서 어떤 행위자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영향력을 가지는 행위자란 결혼이주자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행위자들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 핵심적 개념 중 하나로 사용되는 것은 중심성(centrality)이며, 이는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하여 연결망을 구성하는 다른 행위자들과 연결되는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다른 행위자들에 비해 결혼이주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결혼이주자의 중심성을 1,000으로 가정했을 때 다른 인물들의 상대적인 중심성(relative centrality)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노드는 공간적 규모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였다. 육각형 노드는 결혼이주자, 원모양 노드는 개인적 차원, 사각형 노드는 지역적 차원, 다이아몬드형 노드는 국가적 차원, 삼각형 노드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행위자를 나타낸다. 또한 영향력 강도 .000이상의 노드만을 나타낸 것이며, 영향력 강도는 링크의 굵기로 가는 선에서부터 굵은 선으로 표현하였다. 행위의 차원이 공간적 규모를 넘나들 경우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결혼이주자의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배우자, 가족, 주변인물, 친구·친지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행위자들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영향력 행위자로 등장한 인물은 다른 아닌 미래의 배우자였다. 결혼이주자는 다른 이주자와는 달리 이주의 공간이 배우자가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공간으로 제한되며, 국제결혼 자체는 공간적 이동, 즉 이주를 내포한다. 이는 국제결혼 동기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 미래 배우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 번밖에 보지 못한 미래의 배우자일지라도 이주 후에는 자신이 온전히 배우자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우자의 영향력과는 달리 가족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결혼이주자가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고려한 요인으로 개인적 차원의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송출국 요인 중 개인적 차원의 요인에는 마땅한 신랄감이 없음과 가정의 빈곤이나 불화가 그 요인으로 작용되는데, 그중에서 가정의 빈곤 요인은 -5점에서 +5점을 기준으로 -3.51점으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요인이 결혼이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거주인물의 영향력이 .571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국제이주 이론에서 살펴 본 사회자본론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결

표 4.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고려 요인

구분	송출국 요인			수용국 요인		
	개인적차원	지역적차원	국가적차원	개인적차원	지역적차원	국가적차원
영향력	-3.46	-2.97	-3.00	3.44	3.30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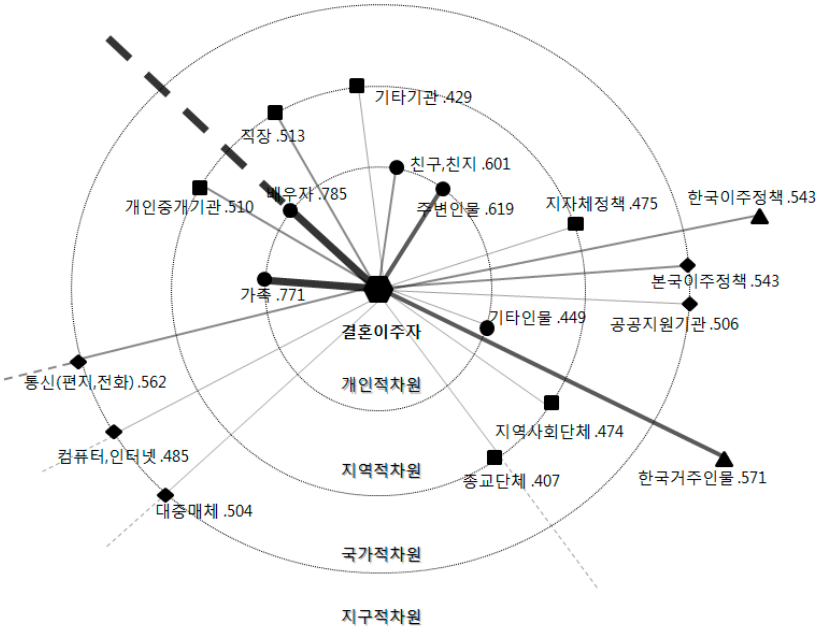


그림 1. 이주 과정에서의 영향력 강도

혼이주자의 주변 인물이나 친구·지인 중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특히 한국으로의 결혼이주 한 한국거주인물과의 통신(.562)을 통한 상호작용이 한국사회에 대한 이미지나 한국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송출국의 국가적 차원의 요인과 수용국의 국가적 차원의 요인파도 연계될 수 있으며, 본국의 낮은 경제 발전 수준(-3.21)이나 기타 본국의 문제점(-2.79)은 배출-흡인론에 따라 결혼이주자가 국제결혼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배출 요인으로써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제 발전 수준(3.35)과 한국에 대한 국가적 호감(3.13)은 이

주를 선택함에 있어 흡인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가족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서의 행위자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연결망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자의 영향력이 낮게 작용 했다면, 결혼이주자의 국제결혼을 통한 한국으로의 유입은 발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 3) 이주 과정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강한 강도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사회적 자본을 갖는다. 이주과정에서 행위자의 영향력은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행위자의 영향력과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직장과 본국 이주정책을 제외한 영향력 강도는 전체적으로 모두 증대되었다. 이주과정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하게 구축하고 있는 결혼이주자들은 그렇지 않은 결혼이주자와 비교해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그 연결을 통해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자원의 동원을 가능하게 해준다. 결혼이주자가 이주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은 행위자는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마찬가지로 가족의 지지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영향력은 .85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배우자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고, 오로지 배우자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눈에 띄는 변화는 개인중개기관의 영향력 강도의 확대이다(그림 2). 결혼중개기관은 그 기관을 통하지 않은 결혼이주자의 경우에서도 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준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주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여권, 비자 등 이주 절차(3.93)가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주과정의 어려움 정도는 어려움이 클수록 5에 가깝고 낮을수록 1에 가깝게 나타난다. 이때 결혼중개업소의 횡포가 주는 어려움은 2.6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그 만

큼 이주 과정에 있어서의 결혼중개기관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게 나타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주과정에서 결혼이주자에게 미치는 다양한 행위자의 영향력은 개인적 차원의 요인과 지구적 차원의 요인으로 대표될 수 있으나 그외에도 기타기관(.666)이나 공공지원기관(.638), 개인중개기관(.707) 등 지역적 차원에서의 행위자가 크게 작용한 형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에 비해 영향력의 강도가 크게 증가한 행위자는 기타기관이었다. 이는 한국이주정책(.685) 및 본국이주정책(.519)과 맞물려 입국 준비를 위한 서류 준비 또는 입국 절차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림 3은 결혼이주자가 생각하기에 이주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된 행위자와 가장 장애가 된 행위자를 선택한 결과로 각각 상위 30% 범위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로 선정된 행위자들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이주과정에서 도움이 된 행위자로는 배우자(44명), 가족(37명), 개인중개기관(13명), 친구·친지(10명), 직장 및 종교단체(각 6명)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장애가 된 행위자로는 한국이주정책(26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20명), 본국이주정책(15명), 친구·친지(11명), 공공지원기관(7명)이 상위 30% 내에 속하였다. 장애 요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배우자를 선택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으로 이를 통해 결혼이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배우자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과 친구·친지는 도움 요인인 동시에 장애 요

표 5. 이주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도

순위	이주과정에서의 어려움	순위	이주과정에서의 어려움	
1	여권, 비자 등 이주 절차	3.93	8 배우자와 가족의 정보 부족	3.46
2	한글을 잘 못함	3.85	9 정착 지역 제도(예, 교육) 낮섬	3.38
3	한국 사람, 문화에 대한 두려움	3.51	10 한국에서 일자리 찾지 못함	3.37
4	정착 지역에서 아는 사람 없음	3.51	11 이주 비용 마련	2.90
5	고향, 조국을 떠나는 아쉬움	3.50	12 친구, 친지, 주변 인물의 반대	2.89
6	한국의 외국인 정착관련 정책	3.50	13 가족의 반대	2.76
7	정착 지역 지리(예, 교통) 모름	3.48	14 결혼중개업소의 횡포	2.63
전체 평균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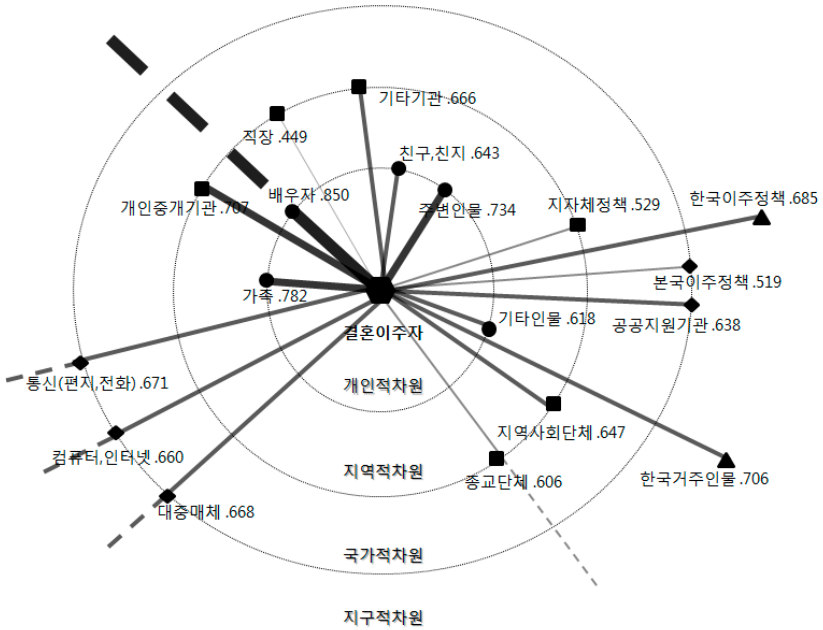


그림 2. 이주 과정에서의 영향력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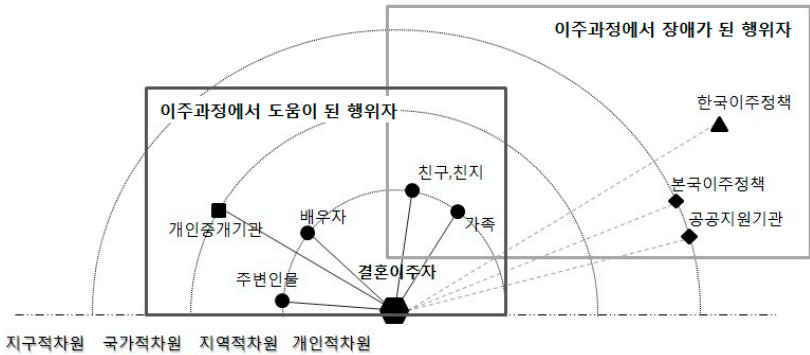


그림 3. 이주과정에서의 도움/장애 행위자

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들의 존재가 이주를 하는데 있어서 큰 지지와 정서적 의지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주 전까지 늘 함께해 왔던 관계를 뒤로한 채 정든 고향과 조국을 떠나는 아쉬움(3.50)이 크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 된다(표 5).

## 4.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

### 1) 이주 직후의 사회적 네트워크

오늘날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를 지향하면서도 정주성(sedentarism)을 포기하지 않는 모순 속에서 실제 만남의 기회는 감소하였으나 도구적인 연결망의 연계 관계는 증가하고, 이동성의 도구가 증대할수록 연결의 폭은 넓어지지만 결합의 강도는 약해지며 리즘 형식으로 사회적 연계와 결속을 가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연결망 사회성(network sociality)이 나타나고 있다(Sheller and Urry, 2006; 장세용, 2012). 입국 직후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또한 공간의 전환을 통해 그 영역은 확장되어 공간을 초월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의 폭은 증가한 반면 결합의 강도는 다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국 거주 당시 결혼이주자의 높은 네트워크 강도는 입국 직후 일시적 단절 또는 네트워크 강도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주 후 결혼이주자가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확장하려던 네트워크는 약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와해·해체될 수도 있다.

설진배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 초기에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공백을 느낀다. 한국생활 초기 경험은 낯선 언어와 환경으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오는 외로움으로 이어지며, 본국에서 친밀한 관계로 맺어진 가족과 친구들은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일종의 상실감으로 다가온다. 이는 본 연구에서 또한 결혼이주자가 이주 직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점(3.93)과 고향(가족 등)에 대한 그리움(3.79)을 꼽았다는 점을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결혼이주자의 이주 직후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영향력 강도에 비해 지역주민과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행위자의 영향력 강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주과정과 달리 정착과정에서 관계 맺고 있는 행위자들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국과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화된 결혼이주자는 앞으로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정주해야만하기에 점차 사회적 연결망의 재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결혼이주자는 배우자나 시부모 배려 없이는 가족 외부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나 그 가족과의 관계가 특히 중요하며, 이 시기 또한 배우자(.851)의 영향력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이주 이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는 가족과 자신의 친구·친지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주 이후에는 배우자의 가족(.801)과 배우자 친구·친지(.662)가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였으며, 그 영향력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림 4).

주목할만한 점은 지역주민이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 한다는 점이다. 결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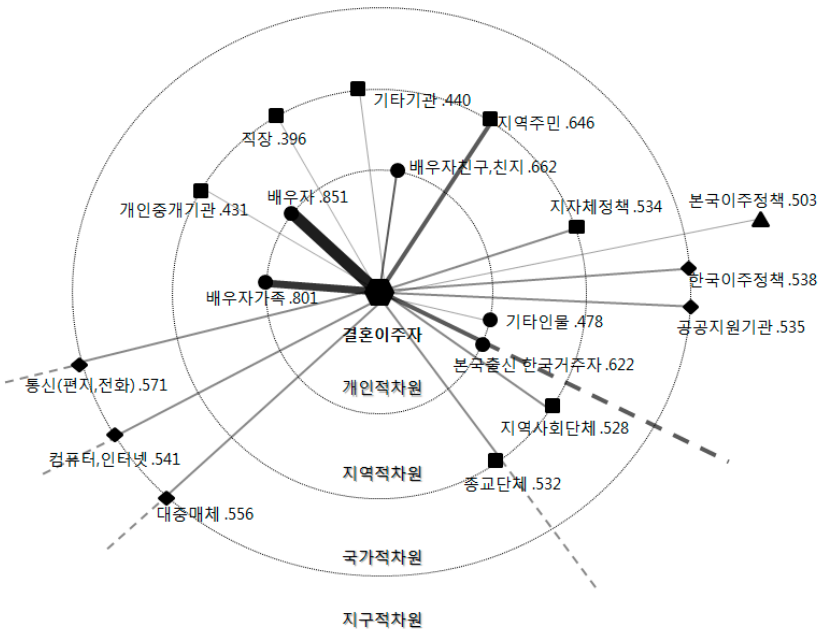


그림 4. 이주 직후 생활에서의 영향력 강도

주자의 특성상 이주 직후에는 가족 내에서만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도 자신의 집 주변에서만 활동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주 직후에는 지역사회 주민과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은 한 집단의 성원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 또는 주관적 거리감이다.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인종, 경제, 지리, 문화 등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다른 국가로의 이주로 공간적 이동을 경험한 결혼이주자들은 대부분이 사회적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의 이주자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무관심과 배제 등은 이주자 개인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으며(이순희 외, 2009), 사회적 차원에서도 한국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감이 이주 직후에는 다소 크게 작용하기에 결혼이주자가 지역사회로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이주 직후에 지역주민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다른 연구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로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장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혼이주자의 초기 정착에 있어서 본국출신 한국인 거주자(622)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 먼저 정착한 동일 결혼이주자 집단의 사전 지식이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동일한 상황의 이주자로부터 신뢰관계

표 6. 이주 직후의 어려움 정도

순위	이주 직후의 어려움		순위	이주과정에서의 어려움	
1	한국어를 잘 못함	3.93	8	가족의 경제 형편(적은 수입)	3.34
2	고향(가족 등)에 대한 그리움	3.79	9	한국의 외국인 정착관련 정책	3.33
3	한국 문화(예절)를 잘 모름	3.52	10	지역 자연환경이 다름(기후 등)	3.29
4	배우자와 갈등	3.45	11	일자리 구하기/직장에서 일하기	3.18
5	지역의 지리를 잘 모름(이동)	3.42	12	본국과의 연락(송금 등 포함)	3.13
6	배우자 가족과 갈등	3.38	13	지역주민과의 갈등	2.99
7	지역 사회(시장, 교육, 병원) 모름	3.38	14	기타 인물과의 갈등	2.33
전체 평균					3.32

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현재의 사회적 네트워크

본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자는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의 시기에서 이주과정의 시기로, 그리고 이주 직후의 시기에서 현재의 시기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중심성과 영향력의 강도가 강화되는 형태를 취했다. 이러한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의 행위주체들 간 결속은 개인적 차원, 지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 지구적 차원의 각 행위자들로부터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네트워크로 발전되어 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로의 동화를 거부하는 배제자로 위치지어질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밀도가 높아질수록 결혼이주자들은 안정적인 정주민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이는 이들의 정체성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설진배 외, 2013).

결혼이주자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나타나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팽창이다. 이는 결혼이주자의 생활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요 행위 주체로서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자의 입국직후 시기에 다양한 지역적 관계망들이 결혼이주자의 생활을 유지·변화시켜나가는 사회적 행위주체가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이주 직후의 시기와는 달리, 지역주민(.724), 직장(.599), 지역사회단체(.594) 등 지역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그림 5). 이는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활동과 관련되는데, 결혼이주자의 경우 입국직후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어려움 또한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점(3.62)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국어와 기타 다양한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민단체와 같은 지역사회단체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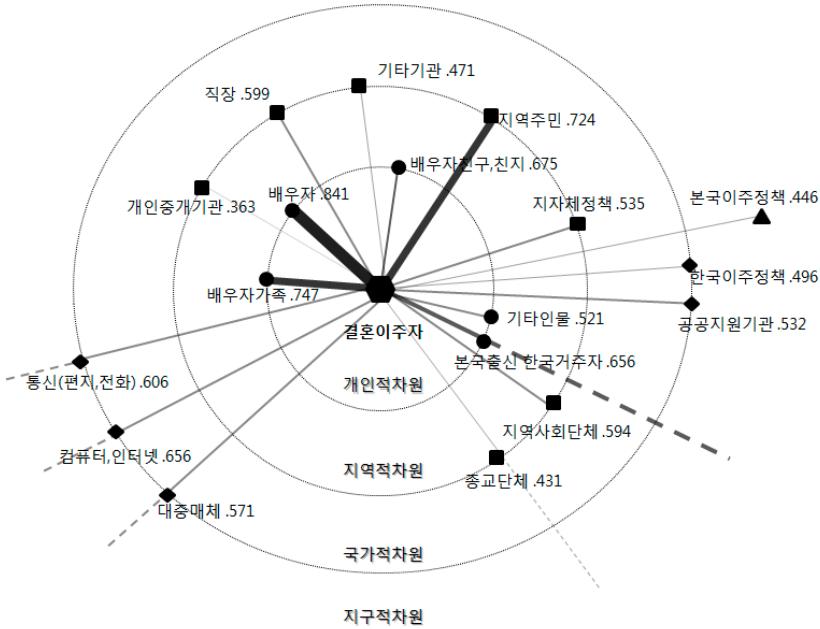


그림 5. 현재 생활에서의 영향력 강도

때문이다. 결혼이주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삶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본국출신 이주자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져야만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에 교육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단체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주자의 적응정도를 대표하는 변수로 한국어 실력이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하지만(이민아, 2010), 반면 한국어 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장지혜·설동훈, 2007). 본 연구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써의 한국어는 결혼이주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표 7).

지역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팽창과 함께 여전히 결혼이주자에게 있어 컴

표 7. 현재의 어려움 정도

순위	현재의 어려움		순위	현재의 어려움	
1	한국어를 잘 못함	3.62	8	한국의 외국인 정착관련 정책	2.97
2	고행(가족 등)에 대한 그리움	3.61	9	지역 자연환경이 다름(기후 등)	2.85
3	배우자와 갈등	3.45	10	지역주민과의 갈등	2.82
4	가족이 경제 형편(적은 수입)	3.25	11	지역의 지리를 잘 모름(이동)	2.76
5	배우자 가족과 갈등	3.24	12	본국과의 연락(송금 등 포함)	2.76
6	일자리 구하기/ 직장에서 일하기	3.24	13	지역 사회(시장, 교육, 병원) 모름	2.63
7	한국 문화(예절)를 잘 모름	3.15	14	기타 인물과의 갈등	2.31
전체 평균					3.05

퓨터·인터넷(.607), 통신·편지·전화(.606) 등의 국가의 공간적 차원을 벗어난 지구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행위자는 현재 결혼이주자의 생활에 또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매체의 발달은 오늘날 결혼이주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아왔다. SNS, 메신저 등과 같은 통신수단의 발달은 결혼이주자와 본국과의 일상적인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이주 전·후의 모든 시간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국제이주 결정 과정에서는 이주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자나 지인으로부터의 연계 수단으로 국제 이주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하며, 이주 직후와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한국 내에서 본국과의 연계를 지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혹은 한국 사회 주민과의 상호작용 수단으로써도 중요한 위치에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경숙(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에게 휴대전화는 본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수품이자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이다. 이들은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두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초국가적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탈영토화 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자의 경우 모국을 떠나 새로운 사회로 유입되면 본국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유입국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는 존재로 상정되어 왔으나(설진배 외, 2013), 오히려 본국과의 연계가 한

국사회 내에서의 적응에 더욱 효과적인 영향력은 나타내기도 하며, 한국과의 연결정도와 함께 모국과의 연결정도가 강한 경우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정유리, 2014).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이주자의 본국과의 네트워크는 더욱 탄탄하게 구축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 3) 현재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변화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은 이론·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결혼이주자의 한국사회에서의 부적응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까지 전수·재생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결혼이주자의 현재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 특성으로 사회적 지지체계의 차이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들의 생활만족도 및 정착에 긍정적/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행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지지 개념을 포함하며, 이는 심리·정서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권복순, 1993). 사회적 지지란 인간의 행복한 삶이나 평안을 의미하는 추상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나 노력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는데(Hoffman and Sallee, 1994; 신준섭, 이영분, 1999; 송복희, 2005),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장지혜·설동훈, 2006), 이는 개인이 겪는 부정적인 환경적 사건 하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어려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조인숙·김미원, 2002). 또한 분명한 것은 사회적 지지의 많고 적음 혹은 높고 낮음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혼이주자의 정착에 있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결혼이주자의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문화적 적응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들고 있다(Kovacev and Shute, 2004; 김도희·이경은, 2008; 박순희,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연결 관계로부터 긍정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로부터 차원을 달리하는 개인·지역·국가·지구적 행위자들의 약한 연대/강한 연대를 유형화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분하였다. 기존의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과 같은 단일 변수들의 영향력이나 특성을 분석하기 보다는 더 강한 연대를 나타내는 사회적 지지체계로 단일 변수들을 결합하고,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8, 표 9).

배우자, 가족, 친구·친지 등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결혼이주자는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체계 특성을 가지는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역사회단체, 직장, 종교단체, 지역주민 등의 지역적 차원의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결혼이주자는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체계 특성을 가지는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지

표 8. 현재 사회적 지지체계에 따른 생활만족감

구분	N	전체만족감		개인만족감		가족만족감		지역만족감		국가만족감	
		M	SD	M	SD	M	SD	M	SD	M	SD
개인적차원	73	3.46	0.557	3.52	0.689	3.38	0.757	3.53	0.728	3.41	0.663
지역적차원	51	3.70	0.592	3.75	0.659	3.65	0.796	3.78	0.757	3.63	0.720
국가적차원	4	3.31	0.800	3.50	0.577	3.50	0.577	3.25	0.957	3.00	1.155
지구적차원	8	3.44	0.496	3.50	0.535	3.38	0.744	3.63	0.744	3.25	0.463
전체	136	3.55	0.581	3.60	0.670	3.49	0.770	3.63	0.750	3.47	0.699

표 9. 현재 사회적 지지체계에 따른 이주직후와 현재 만족도 변화

구분	N	이주 직후		현재		증가율 (%)	df	t
		M	SD	M	SD			
개인적차원	73	2.95	0.506	3.46	0.557	17.3	72	-7.851***
지역적차원	51	2.78	0.632	3.7	0.592	33.1	50	-8.129***
국가적차원	4	2.74	0.142	3.31	0.800	20.8	3	-3.235**
지구적차원	8	2.78	0.488	3.44	0.496	23.7	7	-5.692***
전체	136	2.85	0.563	3.55	0.581	24.6	-	-

\*\*\* p<.001, \*\* p<.01

지체계는 공공지원기관, 한국 정책 등의 영향력이 높은 경우, 지구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체계는 본국가족, 본국이주정책 등의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가족, 배우자 가족, 친구 등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특성으로 한 응답자가 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단체나 공공기관 등의 행위자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체계 특성을 보인 응답자는 51명으로 개인적 차원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이나 지구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특성으로 하는 응답자는 그 수가 개인적·지역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체계 특성보다 확연히 적게 나타났다.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결혼이주자의 경우 한국인 이웃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우울도는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았던 이민아(201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차원의 사회적 지지체계 보다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 경우 다른 만족감보다도 지역만족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에 대한 만족감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발전을 유발하며, 사회적 지지체계 내의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호감이 지역만족감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자의 지역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사회적 지지체계에 따른 이주 직후와 현재 생활만족도 변화를 파악한 결과는 그 증가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부분에서 생활만족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특성으로 하는 응답자의 경우 이주 직후와 현재 생활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그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혼이주자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을 규명하고, 이러한 행위자들이 결혼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기적으로는 국제결혼의사결정 과정, 이주과정, 입국 직후, 현재로 구분하고, 행위자의 규모적 차원으로는 개인적 차원, 지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 지구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결혼이주자의 생활에 있어 행위자들이 미치는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특히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와 형성, 그리고 축소와 확대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인 136명의 결혼이주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시기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 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행위자의 영향력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개인·지역·국가·지구적 차원으로 유형화 하여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은 사회적·정서적·도구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생활에서 중요함을 밝혔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표 변수 등에 따라서 그 패턴이 매우 상이하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과 그것이 그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거주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행한 결과를 세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자의 이주를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는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주 및 정착 과정 시기별로 그 특성을 달리했다. 국제결혼 의사결정 시기 및 이주 과정 시기에는 개인적 차원의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이주 과정에 있어 도움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주 전까지 늘 함께해왔

던 관계를 뒤로한 채 정든 고향과 조국을 떠나는 아쉬움으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혼중개기관은 여전히 이를 촉발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었고, 이미 한국에 이주해 온 가족이나 친구 역시 후속이주를 이끄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이주 후에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이어나갔다.

둘째, 결혼이주자는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의 시기에서 이주과정의 시기로, 이주 직후의 시기에서 현재의 시기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중심성과 영향력의 강도가 강화되는 형태를 취했다. 이주 직후와 현재 모두 개인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서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은 결혼이주자가 본국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경우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결혼이주자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 낮은 영향력은 한국생활 적응 과정에서 결혼이주자의 정서적인 안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의 약화는 한국 생활에서의 부적응과 정보의 부재로 연결되는 반면 영향력의 강화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의 팽창과 확대, 특히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특성으로 하는 결혼이주자의 정착 및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유지에는 한국 내의 연결망뿐만 아니라 모국과의 연결망 역시 포함되는데, 이러한 초국가적 행위자로서의 실천에는 한국에서의 적응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혼이주자들은 자신을 지지해 주는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이 구축될수록 한국생활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이는 이들의 초국가적 실천을 돕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행위자들의 영향이 결혼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의 시기 중 어느 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은 결혼이주자의 시기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뿌리내리고 살아갈 사람들이기에 그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결혼이주자의 경우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인별 특성을 달리하기에 여전히 그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결혼이주자의 이주 전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주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주 이후의 한국 내,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과 모국과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지는 이들의 적응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노력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적 차원의 노력, 정부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자는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강화하려는 가족과 지역사회 수준의 노력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며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회통합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2015.04.28 접수, 2015.06.10 수정, 2015.06.26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구양미, 2008, 경제지리학 네트워크 연구의 이론적 고찰: SNA와 ANT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0, 36-66.
- 권복순, 1993, 장성신분열증환자의 사회관계망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학술대회자료집, 279-289.
- 김경미,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2), 185-208.
- 김동광, 2005, STS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쿤에서 ANT까지, 대칭성의 자기확장 궤적, 한국과학기술학회, 85-101.
- 김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변에 대한 정책지원의 효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4), 285-308.
- 김보현, 2013, 행위자 네트워크이론을 경유한 분단의 재고와 탈분단의 전망, 역사문제연구, 30, 275-307.
- 김용찬, 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3),

81-106.

- 김이선 외, 201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진택, 2012, 행위자 네트워크이론(ANT)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이해와 적용: 공간의복원과 재생에 대한 ANT의 해석, 인문콘텐츠, 24, 9-37.
- 김환석, 2001, STS(과학기술학)와 사회학의 혁신: 행위자 연결망이론(ANT)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1(1), 201-234.
- 나금실, 2011,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자본과 취업만족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435-454.
- 노연희 외,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특성에 대한 연구: 자아 중심적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복지학, 64(2).
- 박순희, 2009, 다문화 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 박순희·조원탁,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비교: 이주여성과 일반여성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2), 41-57.
- 박신규,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주경로별 사회적정체성의 형성: 구미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과정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혜원·문형구, 2009, 집단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집단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황적 효과에 관한 연구: 집단의 과업특성과 구조의 조절효과, 22(5), 2667-2695.
- 석현호, 2000,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23(2), 5-37.
- 설진배 외,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과 초국가적 정체성: 한국생활 적응 과정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20(3), 229-260.
- 신준섭·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241-269.
- 염동문 외, 2013,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3(1), 303-325.
- 이경숙, 2008, 이주여성의 휴대전화 경험과 관계 맺기, 언론정보연구, 45(2), 43-68.
- 이민아, 2010, 이민 전·후의 연결망이 결혼이민자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7, 31-60.
- 이용균,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정향·김영경, 2013, 한국이주노동자의 사이버공동체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2), 324-339.
- 이주재·김순규, 201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

- 복지학, 15(4), 73-91.
- 이충환, 2012, 과학보도는 왜 실패하기 쉬운가: ETRI 김현탁박사팀 보도에 대한 ANT분석, 과학기술학연구, 12(1), 145-183.
- 임석희·송민정, 2015, 영남권 사회문화적 연계의 지역구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62-78.
- 장세용, 2012, 공간과 이동성, 이동성의 연결망: 행위자 연결망이론과 연관시켜, 역사와 경제, 84, 271-303.
- 장지혜·설동훈,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대회 자료집, 85-86.
- 전형권, 2008,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모형접근, 한국동북아논총, 49, 259-284.
- 정유리, 2014,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정체성의 변화: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청도군을 사례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인숙·김미원, 2002,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취학 전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미치는 효과, 한국모자보건학회지, 6(2), 211-227.
- 최병두, 2012, 동아시아 국제노동이주: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 현대사회와다문화, 2(2), 362-395.
-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저, 한국이민학회 역, 2013, 이주의 시대, 일조각.
- 현재환·홍성욱, 2012, 시민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STS의'참여적 전환'내의다양한 입장에 대한 역사적 인식론, 과학기술학연구, 12(2), 33-79.
- 홍민, 2011, 행위자 연결망 이론과 분단 연구, 동향과전망, 83, 47-78.
- 홍민, 2013,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북한 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연구, 16(1), 106-170.
- 황정미, 201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연결망의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4), 1-38.
- Anderson, J. C. and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shford, S. J. and Tsui, A. S., 1991, Self Regulation for Managerial Effectiveness: The Role of Active Feedback Seeking,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 251-280.
- Burt, R. S., 1983, Corporate Profits and Cooptation: Networks of Market Constraints and Directorate Ties in the American Economy, New York: Academic Press.
- Freeman, L. C.,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2, 215-239.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Ibarra, H., 1995, Race, Opportunity and Diversity in Social Circles in Managerial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 673-703.
- Ibarra, H., 1997, Paving and Alternative Route: Gender Differences in Managerial Network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0, 91-102.
- Lancee, B., 2010. The economic returns of immigrants'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The case of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4(1), 202-226.
- Massey, D. S., Arand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and Taylor, J. 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31-466.
- Podolny, J. M., and Baron, J. N., 1997, Resources and Relationships: Social Networks and Mobility in the Workpla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673-693.
- Portes, A. and J. Sensenbrenner,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1320-1350.
- Portes, A, 1995, Economic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An Overview, In A. Portes(ed).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eibert, S. E., Kraimer, J. L. and Liden, R. C., 2001, A Social Capital Theory of Career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 219-237.

## A study on Social Network Changes in migration and settlement processes of Marriage Migrants

Byung-Doo Choi\* · Yu-Ri Jeong\*\*

**Abstract** This research is concerned with evaluation of social network with some principle issues on actors, their relationships and structures of connectiv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e out social network changes and influence linkages among actors through network analysis of human and non-human actor variables and through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life satisfaction in relation to composition of various actors within marriage immigrants' interrelation. To analyze periodic changes regarding absence/creation as well as downsizing/enlargement of social network, the migration and settlement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s has been categorized into four periods; decision making in the home country, international movement to Korea, right after arrival in Korea, and present status. As for an individual, the level of analysis has been divided into four scale, that is, personal, regional, national and global scale to identify living distinctions among marriage immigrants with regards to their influence. As a result, it is found out that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of social networks of 136 survey respondents differ according to their timeframe. Furthermore, by comparing dispariti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four different groups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influence power, it is identified that those who have established diverse social networks show more 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Korean life. Finally, with a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it is demonstrated that establishing social network and providing social supports are two crucial elements for marriage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Keywords** Marriage Migrants, Social Network, Actor Network, Life Satisfaction

---

\* Daegu University, Professor, Geography, bdchoi@daegu.ac.kr

\*\*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er, Geography, jeongyuri2@naver.com